

의약분업			번호: III - B - 5		
제 목	국문	의약분업 정책도입 이후 약사의 처방문의 현황 조사			
	영문	Communication between physicians and pharmacists after the government separation policy of prescription and dispensing of drug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신의철 ¹⁾ , 황진미 ²⁾ , 최수미 ¹⁾ , 박용규 ³⁾ , 정상혁 ⁴⁾ , 이선희 ⁴⁾ , 정우진 ⁵⁾ , 고광욱 ⁶⁾ , 박시운 ⁷⁾ 1) 가톨릭의대 예방학교실, 2) 인천기독병원 임상병리과, 3) 가톨릭의대 의학통계학교실, 4)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5)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6) 고신의대 예방의학교실, 7) 한국누가회			
	영문	Euichul Shin ¹⁾ , Jinmee Hwang ²⁾ , Su Mi Choi ¹⁾ , Yong Gyu Park ³⁾ , Sang Hyuk Jung ⁴⁾ , Sun Hee Lee ⁴⁾ , Woojin Chung ⁵⁾ , Kwangwook Koh ⁶⁾ , Si-Woon Park ⁷⁾ 1)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 Department of Clinical Pathology, Incheon Christian Hospital, 3) Department of Biostatistic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Ewha Womans University, 5)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6)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Kosin University, 7) Christian Medical Fellowship Korea			
분 야	보건관리 의약분업	발 표 자	최수미	발표형식	구 연
			일반회원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연구목적</p> <p>의약분업은 처방과 조제의 기능을 두 단계로 분리시킴으로써 의약정보에 대해 의사와 약사간의 상호 작용 혹은 의사교환을 통하여 결국 처방의 질이 향상된다는 기전으로 실시되었다는 것이 한 가지 논리임. 이 연구는 이러한 논리를 검증하기 위하여 의사를 대상으로 처방문의의 경험 여부와 처방의 질 향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함.</p> <p>2. 연구방법</p> <p>의사를 대상으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를 위한 연구모형과 설문지 개발은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고찰, 연구자 회의,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하여 이루어짐. 설문조사 대상은 전체 의사 중 이메일을 보유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전문과목의 의사를 대상으로 함. 표본 추출법은 이들을 지역별, 성별, 연령군별로 층화한 후 각 층별 분포가 의사회원 모집단과 유사하면서, 표본의 크기가 최대수가 되도록 층화 비례 최다수 무작위 추출하여 총 3,133명을 선발함.</p> <p>3. 연구결과</p> <p>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14명이 응답하여 22.8%의 회신율을 보였으며, 응답</p>					

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은 약사로부터 처방문의를 대부분 (응답자 674명 중 83.8%) 받아본 경험이 있었으며, 처방건 100건당 한 두건 (78.6%) 이 대부분이었음. 처방문의를 하는 약국들은 의료기관 한 곳당 5곳 이내의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위치적으로는 근거리 뿐 만아니라 원거리에서 문의하는 경우도 많아 반반 있었음. 문의약국과의 관계는 보통 혹은 무관한 경우가 많았음.

- 약사들의 처방문의 내용은 대체조제 가능여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처방문의 누적횟수 1,159건 중 514건 (44.2%)), 그 다음이 처방내역에 대한 이의제기 (35.1%), 일반적 문의 (17.5%) 순이었음. 의사는 대체조제 가능여부에 대해 문의를 받는 경우, 대부분 허용하였으나, 그 이유는 주로 현실적 차선택 선택에 의한 경우가 많았음. 즉, 처방문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체조제 가능여부 타진에 대해 의사들은 약의 효능을 우선하기 보다는 어쩔 수 없는 현실적 차선택으로서 이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환자의약서비스 질 향상 측면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사료됨.

- 약사로부터 처방내역에 대해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의사들은 반수의 경우 수용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는 이의내용이 옳지 않았기 때문이 대부분이었음. 반면에 이의를 수용하는 경우는 그 크기를 처방 1건당 수용건수로 환산하면 0.0016건으로 매우 작았음.

- 이의제기 수용효과 크기는 수치상 매우 작으며, 또한 이를 긍정적으로 간주하더라도, 대체조제 허용의 이유인 차선택 선택의 경우가 이 보다 더 많다는 점과,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 국민들이 겪어야 하는 비용증가, 소요시간 증가, 복잡해진 절차 등의 불편함을 고려할 경우, 의약분업실시로 기대했던 적정약제 사용 유도 효과는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처방문의의 환자치료 측면에서의 질 향상 효과에 대해 의사들은 다소 긍정 쪽의 반응을 보였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해석됨. 처방문의 효과와 관련된 유의한 특성들을 살펴본 결과, 의사의 성, 연령군, 전문과목군, 그리고 의료기관의 규모, 지역규모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그러나 주 처방문의 약국 특성과는 유의한 결과를 보여, 주 처방문의 약국의 위치가 근거리일수록, 의사-약사관계가 원만할수록 의사들은 처방문의 효과에 긍정적이었는데 이는 의약분업의 기대목표인 적정약물사용 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약사간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4. 결론 및 고찰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경우, 의약분업 이후 의사-약사간의 처방관련 의사교환은 양적인 측면에서, 의사일인당 빈도 수는 매우 작지만, 전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의료의 질 측면에서 그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됨. 그러나 이 연구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의사와 약사 모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향후 두 집단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와 그 결과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음.